



한국투자증권

‘인천지역 주식투자 설명회’

한국투자증권은 3일 오후 4시부터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개인투자자를 위한 ‘인천지역 주식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훈석 한국투자증권 투자정보부 전문위원과 김성훈 온스타 증권방송 전문가가 나와 ‘최근 주식시장과 유망종목’ 및 ‘주식투자 매매기법’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강의 후 투자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원옥 WM전략본부장은 “이번 인천 지역 주식투자 설명회를 통해 2018년 하반기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유용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유안타증권

카카오페이 결제 고객 이벤트

유안타증권은 오는 9월 30일까지 카카오페이에 유안타증권 계좌와 체크카드를 등록해 카카오머니를 충전하거나 카카오페이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유안타증권 X 카카오페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카카오페이에 유안타증권 계좌로 카카오머니를 1만원 이상 충전한 고객 또는 유안타증권 체크카드로 카카오페이 1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중 총 2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증정한다. /손임지 기자



키움증권

연 10%대 DLS·ELS 판매

키움증권은 세전 연 10.5%의 수익을 추구하는 스탠다운형 기타파생결합증권(DLS)과 조기상환기준 세전 연 17%의 수익을 추구하는 원금부분보장형 추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다.

‘키움증권 제73회 DLS’는 홍콩항셱 중국기업(HSCEI)지수, 서부텍사스유(WTI)선물가격, 브렌트유 선물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낙인(Knock-In Barrier) 55% 스탠다운형 구조로, 기초자산이 최초가격대비 45%를 초과하여 하락하지 않으면 세전 연 10.5%의 수익을 제공한다. /손임지 기자

다시 들쭉이는 ‘남북경협주’

철도·개성공단 기대감에 현대 등 랠리 재시동

현대제철·현대건설 등 일제히 올라 광복절·UN총회 경협 화두 가능성 ‘국내기업 성장 모멘텀 작용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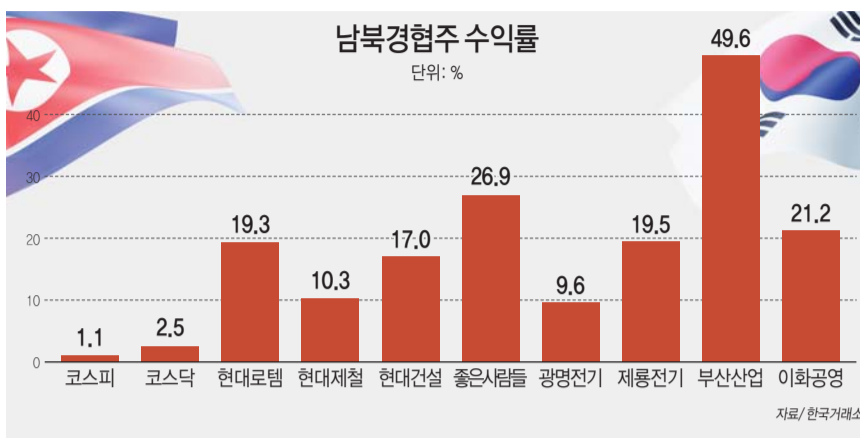
남북경협주가 다시 오름세다. 상승 부담감에 조정장을 거친 경협주가 최근 철도와 개성공단 사업 기대감이 되살아나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향후 종전선언 및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이벤트가 남은만큼 경협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도 투자의 기회를 찾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다시 시작된 남북경협 랠리

1일 주식시장에서 현대제철은 전일 대비 1.49% 오른 5만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유해 공동발굴과 DMZ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이 다시 커진 영향이다.

이 외에도 현대건설(0.17%), 현대로템(1.47%) 등도 일제히 상승했다.

연 초 이후 남북경협주는 무더기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단기 급등세로 시장의 우려를 낳았다. 실제 개성공단 수혜주로 꼽힌 좋은사람들, 광명전기 등은 연 초 이후 5월까지 각각 265.1%, 73.4% 올랐다가 남북관계회복 기대감이 꺾이자 7월 23일까지 53.02%, 41.87% 급락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남북간 철도 공동점 검이 본격화되고 27일부터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이 시작되면서 남북경협주는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달 24일부터 31일까지 부산산업(49.6%), 좋은사람들(26.9%), 이화공영(21.2%), 제룡전기(19.5%) 등이 크게 올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남북 경협주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고, 올 가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예정돼 있어서다.

또 8.15 광복절과 9월 UN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남북경협력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8월부터는 남북경협 모멘텀이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

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서 남한내에서 수행하는 신도시 등 조성사업을 북한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투자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UN안보리 제재 일시중단만 확보하더라도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은 “경협주들이 4월 중순부터 굉장히 빠르게 올랐다가 최근까지 많이 빠졌는데, 지금 보면 그 빠진 수준이 올 봄 급등세를 보이기 전 수준까진 아니지만 그 비슷한 정도까지 빠졌다”며 “바닥을 다지는 가운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업계 ‘지금이야 투자 적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최근 금융투자업계는 리서치센터 내 북한 전담팀을 만드는 등 북한 관련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4월부터 리서치센터 내 ‘한반도 신경제팀’을 만들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삼성증권 역시 지난달 리서치센터 내 유승민 투자전략팀장을 중심으로 ‘북한 투자전략팀’을 만들었다.

유승민 투자전략팀장은 “북한 투자는 길고 큰 눈으로 봐야한다”며 “단기적 시장 테마를 넘어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달 24일 ‘통일경제 전담팀’을 신설했다. 북한 이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기회를 포착해 투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직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에 분기마다 ‘프로젝트 코리아(PROJECT KOREA)’라는 주간지와 관련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들의 통일펀드 출시도 잇따랐다. 현재 삼성자산운용, BNK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등이 관련 펀드를 출시해 운용하고 있다.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6월 11일 통일펀드 출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국내 증시에도 열릴지 모른다”며 “통일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해 긴 호흡을 바탕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및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지완 BNK금융투자 회장이 가입하면서 회사의 대표펀드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손임지 기자 sonumj301@metroseoul.co.kr



중견권, KB증권과 중견기업 성장 협약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KB증권과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양측은 ‘기업지속성장지원 자문서비스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원활한 기업승계, 인수합병(M&A)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 핵심 성장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예정이다. (왼쪽 두번째부터)중견권 이충원 명문장수기업센터 팀장, 김규태 전무, KB증권 김성현 IB총괄부사장, 심재승 SME 금융본부장, 조용환 ADVISORY본부 상무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KB증권과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양측은 ‘기업지속성장지원 자문서비스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원활한 기업승계, 인수합병(M&A)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 핵심 성장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예정이다. (왼쪽 두번째부터)중견권 이충원 명문장수기업센터 팀장, 김규태 전무, KB증권 김성현 IB총괄부사장, 심재승 SME 금융본부장, 조용환 ADVISORY본부 상무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SK이노베이션

주당 1600원 중간배당 의결 주주중시 경영 지속적 강화

SK이노베이션이 2년 연속 중간 배당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주당 1600원의 현금 중간배당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총 배당규모는 1437억원이다.

SK이노베이션의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하반기에도 재무 성과를 만들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주주중시 경영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시장 및 주주 친화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토대로 다양한 주주중시경영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 해 11월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이래 올 3월 주주총회에서 최초 시행하며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해부터 중간배당을 시작한 이래 올해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을 결정, 지난 5월부터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해왔다.

차진석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 부사장은 “답체인지 2.0 기반 선제적 사업구조 혁신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한 결과 주주중시경영 강화를 위해 2년 연속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며 “답체인지 2.0의 강력한 추진에 따라 회사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고 이를 주주들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도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배당금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의 지정일에 입금될 예정이다. /김원주 기자 ujin6326@

하반기 오피스텔 1만1669실 분양... 전년비 3만실 ↓

시장 양극화로 선별적 투자 필요

올 하반기 전국에서 오피스텔 1만 1669실이 신규 분양된다. 지난해 하반기 4만2646실보다 3만여실이나 줄어든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6603실, 서울 2075실, 인천 894실이다. 이밖에 부산(939실), 울산(640실), 대구(354실) 등 대도시 위주로 분양이 이뤄진다.

1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15%로 지난해 5.22% 대비 소폭 하락했다. 2007년 상반기(6.92%) 조사 이래 11년 연속 하락세다. 서울은 4.82%, 경기도는 5.09%다.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하락세이기

는 하나 여전히 시중 예금 금리(2%대)보다 2배 이상 높다. 또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다만 오피스텔 청약 양극화가 뚜렷하고 공급량도 줄어 선별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시장이 양극화되고 침체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물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오피스텔도 양극화가 뚜렷해 ‘잘 되는 곳’에만 수요가 몰리는 풀림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분양물량으로는 HDC현대산업개발은 8월 중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옆에 짓는 ‘평택 고덕아이파크’ 21~37㎡, 1200실을 공급한다. 289만㎡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동문(東門)과 인접한 직주근접 오피스텔이다.

SRT지제역과도 가깝고 지하 2층~지상 3층, 5개층 규모의 상업시설에는 사우나, 대형마트, 패션 아울렛, 카페, 편의점, 약국 등이 들어선다. 6개 상영관을 갖춘 멀티플렉스 영화관(CGV)도 입점한다.

현대건설도 이달 중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도시지원시설 S4-2·3블록에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퀘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2블록 1381실 ▲3블록 1132실 등 2513실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18~29㎡이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